양강구도 광주교육감…양자대결 전남교육감

광주, 6명 후보 각축…전교조 vs 비전교조 대결

전남, 장만채 현 교육감 독주-김경택 선전 관심

교육감 선거는 광주와 전남이 상반된 분위기다.

광주는 6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며 후끈 달아오른데 반해 전남은 양자대결로 밋밋하다.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광주시교육감 출마자는 장휘국 교육감과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등 4명이다.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과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은 16일 후보등록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지난해 말부터 후보가 10명까지 난립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라 과열 양상을 빚었으나 현재는 6명으로 줄었다.

선거 구도는 전교조와 비전교조의 대결로 요약된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후보와 비전교조인 양형일 후보간 양강 구도이다.

장 후보는 "광주교육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학력과 인성, 지·덕·체를 두루 갖춘 미래지향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누가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어떤 정책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유권자들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20%대의 지지율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후보들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봉근 후보는 "광주형 창의혁신학교 운영,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등을 실현하고 광주교육의 실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김왕복·김영수·고영을 후보는 완주의지를 밝히며, 장휘국 후보와 양형일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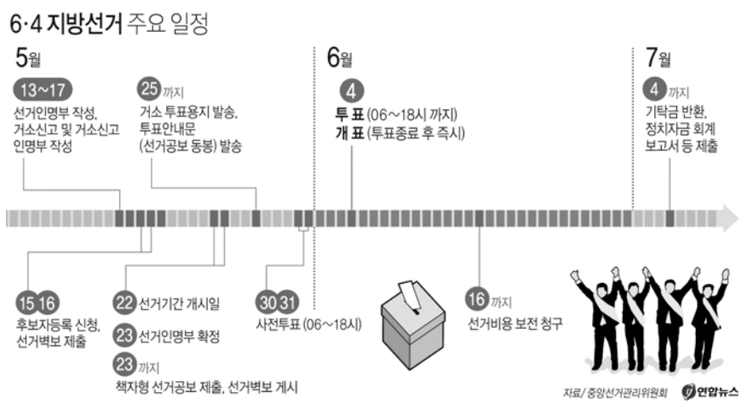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조용한 편이다.

장만채 현 교육감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의 선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장 교육감은 여유가 있다. 후보등록 전날인 14일에야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팀도 최소화해 꾸렸을 정도다.

김경택 후보는 장 교육감의 약점을 파고들며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으며, 1대1로 선거를 치르면 상당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만신창이 '국보 1호' 15일 오후 촬영된 국보 1호 숭례문 단청의 모습. 곳곳이 얼룩지고 벗겨져 재보수가 시급해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숭례문 복원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해 단청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사전 투표제 첫 도입…1인 7표제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되며,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다.

◇사전 투표제 도입=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의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1인 7표제=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색 후보등록자

화순, 임호경·전형준 후보 군수 놓고 9년째 집안 대결

장성 김양수 새정치 후보 부부군수 후보와 연이어 대결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광주·전남에 정식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 가운데 이색 인물과 사연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군수자리를 놓고 9년째 이어온 집안간 대결부터 '부부' 후보와 연이어 승부를 해야하는 군수까지 '영화 같은 사연'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연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엽기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순군수 선거는 두 집안간 숙명의 대결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한번 무소속 임호경 후보와 전형준 후보 간 두 집안의 대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처음 정치적 승부를 펼친 것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호경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후보와 전형준 후보가 맞붙어 전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2002년 군수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남편(임호경)의 바통을 이어받아 200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최초의 부부 군수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지만, 전 후보의 도전을 꺾진 못했다.

하지만, 전형준 군수도 취임 한 달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사임하면서 그해 10월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이번에는 전형준 군수의 동생 전완준 후보가 출마해 당선됐다. 부부군수에 이어 형제군수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형에 이어 동생인 전완준 군수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전완준 군수는 옥중 출마까지 결행한 끝에 당시 임호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이후 군수직 상실형이 확정돼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때 홍이식 후보에게 군수자리를 내줬다.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장성군수 후보도 부부군수 후보와 연이어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김 후보는 2007년 장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이청 후보에게 패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재선거는 이청 후보의 남편인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이뤄졌다. 절치부심한 김양수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재도전해 이청 군수를 누르고 장성군수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김양수 후보에게 이청 전 군수의 남편인 유두석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광주에서는 무소속으로 남구에서 17번이나 선거에 나선 강도석 한민족통일연구소장의 행보도 이색 수준을 넘어선다. 6·4 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나서 남구청장, 시의원 등 지금까지 총 17차례 출마했다. 강 소장은 이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07년 4월 12번째 도전 끝에 광주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운암동방면 ▲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의원

광주새마을금고 신입직원 모집공고

저희 광주새마을금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구분 : 계약직 신규 직원
2. 모집인원 : 0명
3. 응시자격
-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응시방법
• 기 간 :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16일(3일간)
• 접 수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 최근3개월이내)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6. 기타 사항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제, 공휴일 휴무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 금고 기준에 준함
7.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246번길 3(양동) 광주새마을금고
기타문의 사항TEL 062)361-3515~7(총무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